



선거구 획정 여론조사 윤곽 나왔다

도민 700명 대상 설문 문항 확정... 이달 실시 교육 폐지·비례 축소·의원 정수 확대 등 담겨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 통합합 방안은 제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향을 평가할 여론조사 문항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나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여부 등을 묻기로 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안은 여론조사 문항에서 제외됐다.

14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구획정위는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선거구 획정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문항은 크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지역구 의원 31명 등 총 43명으로 된 제주도의원 정수가 적절한지와 >제주특별법 개정

을 통해 제주도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면 증원 인원은 몇명이 적당한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조정해야 바람직한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교육의원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의 2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과 >타 시도처럼 10%로 축소하는 방안 >현재 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의원 제도 조정 방안으로 >현행 유지 >인원 조정 >교육의원 제도 폐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도의원 정수를 확대할 경우 적절한 증원 인원을

으로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을 제시해 선택하도록 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난 선거구를 분구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은 조사 항목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 조사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은 조사 항목에 집어넣을 수 없다”며 “B선거구에 사는 사람에게 A선거구 통합합 방안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선거구 획정에 나서는 이유는 현재 기준에 어긋난 도내 선거구가 여럿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각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 비율(인구 비례 상하 50%)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아라동을 비롯해 >노형동 >애월읍 등 3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한경·주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등 2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선택지는 인구 수

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를 하한선으로 설정한 뒤 지역구 정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역 형평성 논리를 깨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설득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구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발되면 인구 상한선을 벗어난 3개 선거구는 쪼개고, 하한선에 미달한 2개 선거구는 통합하는 방식과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정수를 줄여 그 몫으로 지역구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여론 조사 문항에서 선거구 통합합 방안이 빠진 점을 미뤄보면 앞으로 제주도는 지역구 정수 유지로 결론날 경우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교육의원을 축소·폐지하는 방식으로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자치와 참여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일으켜 진동이 불가피하다. 한편 제주도는 4년 전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해 지역구를 늘리려 했지만 군소정당과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문명공로에서

죽음교육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지난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를 제출했다. 다른 조례와 달리 이 조례는 도민에게 선뜻 다가가기에 어려운 우리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조례는 도민 각자가 죽음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해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

관한 '제주시민을 위한 철학콘서트'에서 죽음을 주제로 운영됐던 게 고작이다.

이런 죽음교육의 걸림돌은 죽음교육 진흥 조례 제정으로 죽음교육의 디딤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평생교육 진흥 조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등이 인문교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등 도민의 인문소양 함양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앞서 조례들은 여러 계층의 도민을 포괄해 죽음교육에 대해서로 관련 프로그램을 공유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정책 실행이 없어 아쉬웠다.

이번 죽음교육 진흥 조례는 죽음교육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지난 2월 본인이 주관한 '죽음교육의 시대적 요구' 세미나에서 죽음교육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정현채 명예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근사체현, 사후세계, 사후통신 등의 내용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생로병사의 죽음의 인식을 폭 넓게 확장했다. 또한 오진탁 교수(한여석대학교)도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하기 매우 힘들다.

둘째 자살 방조 선입견이다. 죽음교육이 자살을 방조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2등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서 죽음교육은 자살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선입견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 죽음교육이 전무하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관 혹은 평생교육기관이 '죽음'을 주제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 몇 년 전 제주대학교 철학과가 주

제죽음교육에 대한 걸림돌은 다 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죽음에 대한 금기(禁忌)이다. 유교 전통 문화의 성격이 강한 제주 사회에서 죽음을 공공연히 말하기 무척 어렵다. 특히 종교 사상 인식이 매우 강해 부모뿐만 아니라 어르신에게도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하기 매우 힘들다.

합리적 죽음 성찰 돕는 교육 웰빙·웰다잉 통해 삶의 질 ↑

죽음교육에 대한 걸림돌은 다 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죽음에 대한 금기(禁忌)이다. 유교 전통 문화의 성격이 강한 제주 사회에서 죽음을 공공연히 말하기 무척 어렵다. 특히 종교 사상 인식이 매우 강해 부모뿐만 아니라 어르신에게도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하기 매우 힘들다.

둘째 자살 방조 선입견이다. 죽음교육이 자살을 방조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2등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서 죽음교육은 자살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선입견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 죽음교육이 전무하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관 혹은 평생교육기관이 '죽음'을 주제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 몇 년 전 제주대학교 철학과가 주

제죽음교육에 대한 걸림돌은 다 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죽음에 대한 금기(禁忌)이다. 유교 전통 문화의 성격이 강한 제주 사회에서 죽음을 공공연히 말하기 무척 어렵다. 특히 종교 사상 인식이 매우 강해 부모뿐만 아니라 어르신에게도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하기 매우 힘들다.

둘째 자살 방조 선입견이다. 죽음교육이 자살을 방조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2등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서 죽음교육은 자살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선입견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 죽음교육이 전무하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관 혹은 평생교육기관이 '죽음'을 주제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 몇 년 전 제주대학교 철학과가 주

LH 불통... 엉뚱하게 4·3까지 될 판

4·3배보상 남았는데... 오영훈 의원 탈당 권유 발목 오 의원 "농지법 위반 사실 없다" 빠른 수사 촉구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원과 관련해 추가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반영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유가 제주4·3 해결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오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제주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는데 기여했다. 특별법은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의 핵심인 희생자 위자료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고,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을 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일에는 제주4·3희생자 유족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마련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번에 갑작스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박하고 소명하는 동시에 탈당을 권유하는 당 지도부를 설득하

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사실관계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 빠른 수사를 촉구한 상태다.

오 의원은 4·3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끝내 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무소속 상태에서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뒤 탈당 권유와 관련 "가능하면 빨리 대화로 설득해서 문제를 매듭짓자는 것이 지도부의 의지인데, 아직 대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연구원

2021년도 연구과제 도민 아이디어 공모계획

- 지역발전에는 필요한 연구과제 및 정책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정책활용도가 높은 연구과제 발굴

□ 공모분야

- 국제자유도시, 문화, 관광, 자치행정 및 재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4차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지역산업,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 등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 참가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직원은 제외)
- 아이디어 제안 필수지원 가능(2개 과제까지)

□ 공모기간

- 2021. 6. 8(화) ~ 2021. 6. 25(금) 18:00 까지

□ 응모방법

-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서(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에서 다운) 작성(5page 내외)하여 이메일 제출(ms21@jri.re.kr)

□ 심사방법

- 연구과제 아이디어 창의성, 실용성, 연구 노력 등 연구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7. 7(예정)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 탐나는지 100만원
- 우수 1명 탐나는지 50만원
- 장려 2명 탐나는지 30만원

□ 활용방안

- 최우수로 선정된 과제는 제주연구원 연구과제로 추진
- (※ 과제 수행 시 제안자 연구과제 참여 가능)
- 제안된 모든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유의사항

- 최종심사 결과 제안내용의 수준 및 예산 등에 따라 포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음
- 타 공모전 참여 및 수상, 타인의 저작물로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내역을 취소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된 과제는 먼저 제안된 과제를 우선하여 심의함

□ 문의처

- 제주연구원 연구기획협력부 담당 김민선(064-729-0541)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전기실무자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 취업처 다수확보 ★

대 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 재직자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 7개월 과정
모집 근시일 마감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 의
064-749-3434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w.com

주소: 전라남도 · 교육청 * 본교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만감류 매달기! 다인 골고리

8.5cm + 3cm + 폭 5.5mm =

골고리 인피고정판 인피밴드 골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골고리 사용 방법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골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은 전에 미리 던져 들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 드는 유인줄 ‘안파고’

- + 굵,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친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 원터치&조간편 길이 조절.
-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 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줄대 세트 (대형연)

필진 천, 강한 부풍 비스듬에도 다르다

골고리, 유인추,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